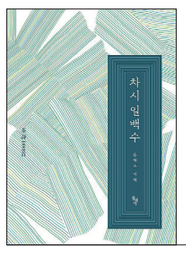
한국·중국 茶詩 정수 일백 편



차시 일백수
송재소 역해
돌베개
3만6천원

한국 · 중국 대표 차시 113수 소개
초의 '동다송' 정약용 '걸명시' 등
한국의 대표 차시 57편 소개해



초의선사가 머물며 〈동다송〉을 지었던 일지암의 차밭.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 하늘과 땅이 좋은 나무를 귤의 덕과 짝지우니
2. 천성을 바꾸잖고 남국에서 나는데
3. 빽빽한 잎은 눈과 싸워 겨우내 푸르고
4. 흰 꽃은 서리에 씻겨 가을 송이 피우네
5. 고야산의 신선인 양 분 바른 듯 고운 살갗
6. 염부의 단금인 양 같은 가지에
7. 이슬에 맑게 씻긴 푸른 옥 같은 가지에
8. 아침노을에 젖어 있는 물총새 혓바닥"

초의 선사의 '동다송' 일부다. 차시(茶詩)다. 차시(茶詩)는 차를 소재로 한 시이다. 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차를 소재로 한 시를 써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시대에 차가 들어온 이래 수많은 문인 학자가 차시를 써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차를 예찬하는 시를 쓴 것은 차를 단순한 기호식품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간 〈차시 일백수〉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차시 113수를 소개한다. 번역과 주석, 해설을 달았다. 그리고 부록으로 '한국의 차 문화'와 '중국의 차 문화'를 수록했으며, 8편의 차 관련 글을 '참고'로 수록하여 차에 관한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게 했다. 한국시는 이규보 등의 시 57수가 실렸고, 중국시는 이백 등의 시 56수가 실렸다.

'차'를 하나의 코드로 삼아 한국과 중국의 시들을 골라 읽으면 이들 사이의 영향과 문화의 공유 등을 볼 수 있는데, 차 문화로는 후발 주자인 한국은 대체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조선 후기에 오면 차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대략 두 가지의 효능을 경험한 듯하다. 첫째, 건강과 관련한 차의 효능이다. 차는 잠을 쫓고 숙취를 없앨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조태채는 차가 인삼만큼 귀하다고 노래했다.

둘째, 차를 수양의 방법으로 삼았다.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신선이 된 듯하다는 표현이 시에서 자주 나온다. 특히 스님들 사이에서 차가 성행했는데, 중국 선종의 6조인 혜능이 승려의 수행을 돕는 도구로 차를 음용한 이래 차를 가꾸고 마시는 것을 일종의 구도(求道) 과정으로 여겼다. 이른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이다.

한국의 경우, 신라 선덕야왕(재위 632~647) 때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 경덕왕(재위 742~765) 때 충담 스님이 남산의 미륵불에 차를 공양하고 왕에게도 바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차가 스님들 사이에서 음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억압을 받았다. 사찰과 스님들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차 문화가 크게 위축됐다. 조선의 차 문화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크게 쇠퇴했지만, 스님들과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18세기 조선에서 차 문화는 중흥기를 맞는다. 면면히 이어오던 조선의 차 문화를 다시 일으킨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차를 즐겼는데, 강진 유배 시절에 만덕사 혜장 스님과 교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차를 연구하면서 즐겼다. 다산이 혜장 스님에게 차를 보내달라고 쓴 이른바 '걸명시'(149쪽)는 너무나 유명하다.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조가 다산이라면 차 문화를 완성한 사람은 초의 선사다. 1809년 강진에서 다산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차를 연구했다. 한국 차 문화사에 길이 남을 〈동다송〉을 저술하고 차의 걸작 '초의차'를 탄생시켰다.

중국에는 일생을 바쳐 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고, 차가 좋아서 늘 차를 마시면서 차를 예찬한 '차 마니아'도 많다. 청나라 건륭 황제는 차를 좋아해서 "임금에게는 하루라도 차가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차시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느낀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차의 본고장인 만큼 문인이라면 누구나 차에 관한 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백, 백거이, 두목, 소식 등 수많은 문인들의 차시가 있다.

고단한 사바 위안하는 노래, 스님들의 詩



승려시집 11권
오심 스님 외 지음
차의 세계
1만5천원

승려시인회 회원 24명의 시 196편

승려시인회(회장 진관 스님)가 8월 7일 〈승려시집〉11집을 발간했다. 11집에는 회원 24명의 작품 196편이 실렸다.

승려시인회는 1971년 3월 14일 대구 파계사에서 무산(오현) 스님을 회장으로 20여 명의 스님들로 발족했고, 승려시집 4집까지 발간했으나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1993년 진관 스님을 필두로 한 제5집 〈피안으로 가는 수레〉를 재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연들과의 만남과 만남에서 주고받았던 '말 아닌 말과 글 아닌 글들'이 도반들에게는 탁마의 채찍이 되었고, 고단한 사바를 위안하는 노래가 되어 〈승려시집〉이라는 기록으로 묶어진다.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일체가 교외별전이요, 팔만사천의 방편이다. 그래서 〈승려시집〉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외별전의 전승이요, 팔만장경에 보태는 한 권의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풍요롭게 장엄하리라 확신한다."

진관 스님의 생각처럼 11집에 실린 시들은 많은 인연 속에서 주고받았던, 말이면서 말이 아니었고, 글이면서 글이 아니었던, 불가적 언어의 문법으로, 독자들에게는 탁마와 위안의 노래로 들려온다. 서로 다른 사유와 문체로 사바를 바라보고 부처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써내려간 시들은 팔만장경에 보태는 한 권의 또 다른 경전으로 다가온다.

불교에서는 말과 글로 온전히 표현하고 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승의제라 하고, 승의제를 설명하는 언어 등을 세속제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말과 글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리의 범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의제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신 바 없지만 세속제로서 팔만대장경이 있게 된 것이다. 승려시인회 회원이자 여래문학회 회장인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에 따르면, 〈승려시집〉 역시 세속제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같은 단어도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승려시집〉에 실린 작품 하나하나가 스님들의 수행과정을 세속의 언어로, 때로는 팔만장경의 말씀을 빌려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수행과 또 다른 형식으로서 전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억불' 넘어 불교사상 이어간 선지식들



함허기화·청허휴정·경허성우 불교사상의 계승자들
김용태 편저/ 창비
2만2000원

창비 한국사상선 제4권 〈함허기화·청허휴정·경허성우: 불교사상의 계승자들〉은 조선 시대 숭유억불 정책 하에서 시대와 공존하고 스스로의 활로를 찾으며 불교의 정통을 계승하고자 한 세 선지식의 글을 모았다.

특히 불교 배척의 기세가 가장 심했던 조선 초기에 불교의 가치를 지키고 선종과 교종의 틀을 지킨 함허 기화 스님, 임진왜란 중에 승려들을 이끌고 구국 항쟁을 벌임과 동시에 수행 체계를 새로 정립해 조선 후기 불교의 지향을 제시한 청허 휴정 스님, 근대 이행기에 선의 중흥을 도모한 경허 성우 스님의 삶과 생각을 담아냈다.

함허 기화는 단순히 자기 종파에 머무르지 않았고 불교가 선종과 교종으로 나뉜 근본적 원인을 면밀히 탐구했다. 또한 유교와 불교의 공존을 주장하면서, 당시 불교 무용론의 분위기 속에서도 불교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음을 설파했다. 불교가 유교의 통치 이념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도 부합하는 종교임을 꾸준히 알린 것이다.

불교사상과 관련해서 청허 휴정은 선종과 교종 간 갈등을 타개하고 두 전통을 아우르고자 했다. 그는 간화선을 통한 선과 교의 동시 수행, 즉 선교겸수를 권했고, 이는 이후 한국 불교계에 굳건히 계승했다.

근대 전환기에 활동한 경허 성우는 대중 앞에서 항상 온화한 얼굴로 설법했으며, 생각이 같다면 남녀노소와 귀천을 불문하고 참여를 이끌며 선의 일상적 실천과 대중화를 추구했다.

편저자인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는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불교계는 시대와 공존하면서 스스로의 활로를 찾았고 선과 교, 신앙과 의례 전통 등의 복합적 계승이 가능했다"면서 "이 시기 간화선 수행과 선종 우위의 인식, 교학의 전승과 화엄의 중시, 염불 정토 신앙의 확산 등 조선불교의 내적 정체성이 형성됐고, 이는 현재 한국불교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조선 불교의 원형을 만들어내고 지켜온 것은 함허 기화, 청허 휴정, 경허 성우 등의 선지식들이다. 이 책에 수록된 선지식의 저작에서 불교가 한국 사상사 전반에 미친 영향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 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아비달마 수행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분석하여, 유부의 수행도론은 5온에 대한 단계적 통찰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모를 조망하였다.
김경희 지음/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초기불교 수행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율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초기 인도불교 승가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흔드는 파격적인 연구서!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신국판/무선/40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